



멧돼지와 전쟁 승리로 농가 피해를 없애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 전남에서 4,921마리 광주광역시에서 232마리의 멧돼지를 잡아 마리당 보상금을 20만 원씩 지급했다고 했다. 이들 멧돼지는 대부분 포수가 사살하여 잡았다고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에 감염되어 북한에서 산을 타고 남하하고 있어 멧돼지 퇴치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으며, 전국은 지자체별로 창의력을 발휘해 멧돼지 소탕 작전을 펴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별로 창의력을 발휘해 멧돼지를 잡게 하고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한다고 밝혔으며 광주광역시도 멧돼지 포획 틀을 활용해 멧돼지 소탕 작전에 나섰다. 지혜롭게 멧돼지를 마을에서 잡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멧돼지는 잡식성으로 농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민가에까지 들어와 피해를 주는 해로운 산짐승이다. 번식력이 좋아서 한 번에 열 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으며 멧돼지 천적이 산중에 없어 멧돼지가 산중의 왕으로 군림하며 번식하고 있어 지자체는 골칫거리인 멧돼지 제거를 위한 전쟁을 펴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인 60년대 쥐가 너무 많이 번식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쥐와의 전쟁으로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펴고 쥐 잡는 방법을 안내했으며 잡은 쥐는 쥐 꼬리를 모아 실적이 많은 시군에 표창했다. 이제 쥐가 아닌 멧돼지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올해 1~2월 중에 시행하여 멧돼지를 소탕해 농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전쟁하려면 지혜를 짜서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쟁 도구인 무기를 준비하여 작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멧돼지 습성을 알고 준비물을 갖추어 소탕 작전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멧돼지를 잡는 것은 염총으로 포수가 잡는 것에 의존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은 역부족으로 불어나는 멧돼지 수를 줄일 수 없었다. 농한기에 마을 주민이 나서서 멧돼지 소탕 작전을 하고 이를 지자체는 지원해야 한다.

주민이 멧돼지를 잡으면 보상해주고 잡은 멧돼지는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있다. 물고기 잡는 도구가 여러 가지 낚시와 그물이 있듯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하는 멧돼지 잡는 방법이 알려졌는데, 농민들이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함정을 파고 먹이로 멧돼지를 유인하여 우둔하고 저돌적인 멧돼

지가 함정에 빠지게 하고 힘이 지쳤을 때 쉽고 안전하게 잡는 방법이며,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함정을 파지 않고 드럼통이나 다라이 통을 경사진 언덕 길에 45도 각도로 누어 고정 위장 장치하고 먹이로 유인하여 통속에 들어간 멧돼지를 쉽게 잡는 방법이다.

멧돼지가 다니는 길에 올가미 덩을 놓아 잡기도 하고, 철제로 멧돼지 포획 틀을 만들어 멧돼지가 출현하는 곳에 설치하고 생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멧돼지는 난폭하고 순화가 안 되어 염총으로 사살하거나 도살한다. 눈이 내려 쌓이면 멧돼지 발자국이 생김으로 이러한 작전의 작업 장소 선택이 쉽다.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한기에 농촌에서 농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멧돼지를 잡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신진국에서는 멧돼지를 잡아 없애 개체 수를 줄이고, 먹이인 사료에 불임약을 투여해 먹게 하여 개체 수를 줄인다고 한다.

멧돼지는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야산에 서식하는 잡식성 동물이며 번식력이 좋아 개체 수가 해마다 많이 불어나고 있으며 멧돼지를 잡아먹는 천적이 산에 없어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 농촌의 농지에 침범해 고구마를 비롯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발농사를 포기한 농민도 있으며 멧돼지 방지를 위해 밭 가장자리에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는 농가도 있다.

이러한 멧돼지는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묘지까지 파헤 치며 마을과 도심에까지 내려와 먹이를 구하고 인명 피해까지 주고 있다. 농촌연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되어 발농사 경작이 어려워 고구마를 비롯한 밭작물에 멧돼지가 피해를 주어 경작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해 지자체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멧돼지 소탕 작전에 관심을 두고 적기인 1~2월에 멧돼지 소탕 작전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주민과 같이 추진하여 멧돼지와 전쟁 승리로 멧돼지 피해 없는 발농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멧돼지와 전쟁에서 생포한 새끼는 돼지사육 농가에 보내 멧돼지의 습성을 순화시켜 잡종 돼지로 사육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야 한다.

칼럼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지나갈 때는 길을 터주세요

기고

이윤 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경



소방차 길 터 주기 훈련은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화재·구급 등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 양보의식을 향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재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은 화재가 성장하여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든타임(화재현장 소방차 도착시간)을 7분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도심 환경은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의 신속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

1.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지리조사 및 긴급출동로 사전 확보
2. 효과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상황 근무자 전문성 향상 교육으로 출동시간 단축
3. 첨단 교통 시스템 연계·구축 및 확대 방안 강구
4.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마지막으로 시민 스스로가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소방통로가 위험에 처한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는 통로라 생각한다면, 이런 안전수칙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알고 계십니까?

기고

김창영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겨울철 안전대책으로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예방홍보팀장 김창영)는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와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물이다.

신고는 자신이 목격한 불법행위만을 한정하며, 무안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보상은 1회 당 현금 5만원 또는 지역화폐이다.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지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구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용도에 방해가 되거나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기고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하여

이검지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두 달이다. 현재 서서히 인구 유입이 줄어드는 군 단위와 달리 특별시 및 광역시 등 시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은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들도 경각심 역시 날이 갈수록 더해져야 하지만 빈번한 화재에 오히려 화재에 대한 이미지가 소모적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들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화재는 전기, 배터리, LPG 가스 누출, 담뱃불 화재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대 차량의 단순 화재가 아닌, 줄지어 붙어 있는 차량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번모된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화재가 대형 화재화되는 것은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전 기차 비중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충전시설은 공간 확보를 위해 역시 지하주차장에 다수 충전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이다. 밀폐된 공간이기에 더욱 화재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 대가 아닌 여러 차량의 화재를 목격한다면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도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만약 내 차에서 화재가 났다면, 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하여 작은 화재의 경우 보닛을 열어 임시방편으로 진압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차량 내 소화기가 없다면 무리하게 화재를 진압하려는 노력보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지하주차장은 현대사회에 빠질 수 없는 시설이고 장점이 많다. 하지만 어떻게 잘 예방하며 이용하느냐에 위험성도 따르는 양날의 검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술은 진보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안전의식 역시 같이 함양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